## 동강대, 3년 연속 육군간부 인재선발 최우수대학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육군간부 인재선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육군본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육군 간부 전국 최다 배출을 기록한 동강대는 육군본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조동권 학과장은 "지난해 졸업생 43명 중 장교 3명을 포함해 36명이 직업 군인의 꿈을 이뤘다"며 "지난해까지 육군인사사령관이 수여한 감사장이 올해 육군참모총장 수여로 격상돼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군사학과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동강대 군사학과는 지난해 국방부 정책사업인 육군 부사관학군단(RNTC: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을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유치하며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직업군인 요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본부세관, 반도체 보세공장과 간담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최근 관내 3개 보세공장 임원진과 반도체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보세공장은 외국원재료를 과세 보류상태에서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특허보세구역으로,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와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지역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원자재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27억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광주 수출의 40%에 육박하는 최대 수출품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승환 세관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 악조건 속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밖에 현재 가중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대란과 관련해 수입원자재의 투입과 수출물품의 선적에 통관상 지체가 없도록 특별지원팀을 통해 24시간 상시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불합리한 규제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전달해주면 반영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상수도사업본부 이윤국 주무관 광주공무원 첫 환경영향평가사 합격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사업소 이윤국 주무관(환경연구사·사진)이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행한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광주·전남 지방공무원 최초로 합격했다.

환경영향평가사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공항 및 골프장 건설 등 각종 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평가하는 환경분야 최고 등급의 자격증 중 하나다.

이 주무관은 지난 2017년 대기·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해 환경측정분야 분석전문가로도 인정받아 측정분석기관의 분석능력과 정도관리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주무관은 1995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2002년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입해 대기·수질·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에 윤명수 전북사무소장 부임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신임 소장으로 윤명수(57·사진)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이 부임했다.

윤 신임 소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해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등을 거쳐 공단본사 재난안전차장,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윤 소장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지리산국립공원 자연자원의 온전한 보전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을 강화 할 것"이라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롯데아울렛 남악점, 신안 보훈가정에 이불 꾸러미 전달

롯데아울렛 남악점(점장 김광희) 샤롯데 봉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전남서부보훈지청을 통해 신안 보훈가정 60가구에 전달하기 위한 이불 꾸러미를 지원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 광주남부소방서, 대학생 '119구급차 동승 실습' 운영

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119구급차 동승 실습'을 오는 8월 19일까지 운영한다. 〈광주남부소방서 제공〉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SBS |
|---|---|---|---|---|
| 6 |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KBS 뉴스 광장 |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br>10 걸어서 세계속으로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0 해 볼만한 아침 M&W |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br>50 생방송 오늘 아침 | 20 KBC 모닝와이드<br>40 모닝와이드 3부 |
| 8 | 25 아침마당 | | 50 비밀의 집(재) |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br>50 좋은아침 |
| 9 |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45 KBS 뉴스 | 00 KBS 아침 뉴스타임<br>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 30 930 MBC 뉴스<br>45 기분 좋은 날 | 55 SBS 10 뉴스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00 인간극장 스페셜<br>40 지구촌 뉴스 | 45 헬로키즈<br>글로벌 동물 뉴스(재) |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
| 11 |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 00 황금가면 스페셜(재) | 15 뚝딱구조대 2<br>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 30 고향이 보인다 |
| 12 |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KBS 뉴스 12 | | 00 12 MBC 뉴스<br>20 닥터로이어(재) | 00 SBS 12뉴스<br>20 민방 네트워크 뉴스<br>40 왜 오수재인가(재) |
| 1 |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br>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 00 자본주의 학교(재) | 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br>50 2시 뉴스 외전 | |
| 2 |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br>30 방과 후 초능력 | 30 영상앨범 산(재) | | 00 뉴스브리핑 |
| 3 | 00 주디세이<br>15 똘똘이의 그림일기 동요<br>30 고둥둥심포니<br>45 다이노 파워즈 | 00 KBS 뉴스타임<br>10 갤럭시 키즈(재)<br>30 TV 유치원 | 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br>55 기분 좋은 날(재) | |
| 4 | 00 사사건건 | 00 누가누가 잘하나 | 55 5 MBC 뉴스 | 00 생방송 현장 리포트(날)<br>40 엘리가 간다 |
| 5 |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30 전국을 달린다<br>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재) | 00 뽀족뽀족 포크가족<br>15 티티 체리<br>30 놓친 예능 따라잡기<br>50 통합뉴스룸 ET | 10 지도의 뒷면 | 00 SBS 오뉴스<br>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
| 6 | 00 6시 내고향 | 30 2TV 생생정보 | 05 본방을 보자 | 20 KBC뉴스와이드 |
| 7 | 00 뉴스7 광주전남<br>40 한국인의 밥상 | 50 황금가면 |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br>10 비밀의 집<br>40 MBC 뉴스데스크 | 50 SBS 8 뉴스 |
| 8 | 30 으라차차 내 인생 | 30 주접이 풍년 | | 30 KBC 8 뉴스 |
| 9 |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KBS 뉴스9 | 50 징크스의 연인 | 00 다큐 M | 00 판타스틱 패밀리-DNA 싱어 |
| 10 | 00 주문을 잊은 음식점 2<br>50 더 라이브 | | 00 악카펠라 |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br>그날 이야기 |
| 11 |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KBS 뉴스라인 | 00 연중 라이브 | 20 문화콘서트 난장 | |
| 12 | 10 예썰의 전당(재) | 00 스포츠 하이라이트<br>25 통합뉴스룸 ET(재)<br>55 사랑의 가족(재) | 30 광주MBC 보다 스페셜<br>40 닥터로이어(재) | 00 나이트라인<br>30 미디어세상<br>시청자와 통하는 TV(재) |

##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두다다쿵
07:15 티시태시
0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하프와 친구들
08:50 방귀대장 뽕뽕이
09:05 빅 블루
09:2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09:30 어떻게 만들까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부모 클래스
13:00 바닷가 사람들
13:50 명의
14: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5:05 클래스 e
15:25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 교육感터뷰
15:50 할 수 있다고 2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 피그
16:25 한글용사 아이야(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하프와 친구들(재)
17:45 그린조끼 구조대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8:45 한자로 통(通)하는 삼국지(재)
19:00 몬카트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20:4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이것이 야생이다 3
22:45 바닷가 사람들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30일 (음 6월 2일 甲寅)

☎ 010-9790-8237

**子** 36년생 기다려 왔던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48년생 주어질 기회는 천재일우요, 구우일모라 할 수 있으니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60년생 진력한 만큼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 72년생 흡사해 보이지만 근본 원인부터 다름을 알아야 한다. 84년생 머지않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 96년생 듣고 참고만 하자. 행운의 숫자 : 27, 95

**丑** 37년생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이다. 49년생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괴로워 할 수도 있다. 61년생 진행은 되지만 성과가 시원치 않을 수도 있다. 73년생 현재의 상태대로 계속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85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97년생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28, 86

**寅** 38년생 꾀나 속상할 일이 생기겠으니 마음을 비우고 속 편하게 생각하라. 50년생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청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62년생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흔연히 대하라. 74년생 부담스럽다면 단계에 상관없이 번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86년생 확실히 펼쳐야 할 도량이다. 98년생 정도를 걸으면 봄날이로다. 행운의 숫자 : 38, 60

**卯** 39년생 의심스럽다면 다시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 51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가지고 있다. 63년생 뜻밖에 나타난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 75년생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7년생 여기저기 두루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다. 99년생 좀 더 크고 먼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울린다. 행운의 숫자 : 48, 96

**辰** 40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되어 가니 난감해지리라. 52년생 과감한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64년생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76년생 서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88년생 참으로 힘들더라도 중도에서 그만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00년생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6, 56

**巳** 41년생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관재 구설을 자초하리라. 53년생 해묵은 일이 처리되는 명쾌함이 있도다. 65년생 희망의 보따리를 짊어진 이의 제의가 있겠다. 77년생 게을리하다 보면 천추의 한을 남길 수도 있다. 89년생 상호 교류를 위한 통로나 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01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0, 93

**午** 42년생 형세가 세분화되면서 훨씬 복잡해진다. 54년생 기다렸다는 듯이 때맞추어 나타나리라. 66년생 가능성은 농후하니 실행에 옮겨도 지장이 없다. 78년생 대하기 부담스럽다면 확실히 피해버리는 것이 낫다. 90년생 안전하지 못한 양태이니 방심하지 말고 즉시 조처해야 한다. 02년생 마음을 비웠을 때 성취도가 높아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2, 52

**未** 43년생 거침없이 밀어 붙여야 가닥이 잡힐 것이다. 55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67년생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치에 이르리라. 79년생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지 말고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91년생 계속적이어야만 실효성을 띠게 된다. 03년생 무리한 방법은 피하고 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37, 88

**申** 44년생 함께하는 이와의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56년생 무지개빛의 길조가 아름답게 비친다. 68년생 작용력의 여파를 간과한다면 불리해진다. 80년생 입장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다. 92년생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리라. 04년생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기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84

**酉** 33년생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45년생 돌고 도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57년생 현상을 직시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할 때이다. 69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순탄함을 낳을 것이다. 81년생 과감한 결단이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93년생 석연치 않다면 중단해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33, 80

**戌** 34년생 실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46년생 수박 겉핥기식은 무의미하니 핵심 속성을 인식하자. 58년생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70년생 궁한 처지에 있던 이가 특효가 있는 약을 얻는 이치이다. 82년생 잘 알아보고 써야만 부작용이 없다. 94년생 방심하면 놓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5, 92

**亥** 35년생 알면서도 빠져들 수 있느니라. 47년생 소모적이라면 한시바삐 선회하라. 59년생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문제가 수습될 것이다. 71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합리적으로 처리해야겠다. 83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고 본다. 95년생 편견을 가진다면 선입감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0, 55